

지역 소식통

완주군, LH 입주희망자 모집

완주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매입입대주택 입주희망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로 2인 이하 가구(1형) 40세대, 3~4인 가구(2형) 20세대 등 총 60세대다.

매입입대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개보수해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매입 대상은 삼례읍, 봉동읍 소재 주택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07) 현재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이 해당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성덕면 새마을회, 농약병 수거활동

김제시 성덕면 새마을지도자회(회장 서석유)는 19일 무더위에 맞서며 농약병 및 폐비닐 수거 활동을 전개했다.

토지 및 수질 오염예방과 자연보호를 위해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농로주변 및 마을 등을 돌며 농경지에 방치되어 있는 각종 농약병과 공병 등의 수거활동을 전개하였다.

빈병 수거에 앞서 농약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체적으로 간단한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환경정비 및 재활용품 수거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며 각 마을에서 마을회 수거해 온 농약병을 회원들이 손수 정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해준의 모래로그리는 동물이야기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추억과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가족공연 '샌드애니메이션 김해준의 모래로 그리는 동물이야기'가 오는 22일 오후 2시 김해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2017년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 공모 선정된 공연 프로그램으로 김제시민과 함께하는 "함께해요! 예! 예! 예!"이며 어린이, 청소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이번 공연은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게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모래로 그리는 동물이야기를 환상적인 무대로 꾸며진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행복학습센터 운영

오는 11월까지... 여성친화·실버학습형 등 6개 테마로 교육과정 구성

김제시는 교육부 2017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6개 읍면동지역에서 17일 금구면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

김제시 행복학습센터는 시민의 거주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거리 학습망 구축을 통한 '학습의 일산화' 목표로 운영되는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여성친화형, 지역자원활용형, 실버학습형, 안전형, 공동체나눔형, 교육형 등 지역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6개의 테마의 짜임새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신동중지역 주민을 위한 '길보른 행복학습센터'는 여성친화형 테마로 경력단절 주부의 자가격 취득 및 취창업을 위한 '지역통계조사원 교육' 등 4개 교육과정, 벽골재 행복학습센터는 지역자원인 '쌀'을 이용한 우리쌀꾸기 제조과정, 하동골 행복학습센터는 지역내 실버세대를 위한 노후학습형 테마로 은빛다방 건강차·수제청교실 등 3개과정, 금구면 행복학습센터는 안전한 마을 지킴이 활동을 위한 '마을 안전보안관 교육' 등 2개과정, 교월동 행복학습센터는 건강발바사지 등 2개 과정, 공동면 행복학습센터는 생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6개의 테마의 짜임새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 총 6개소까지 13가지 다양한 행복학습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밖에도 각 개소별 행복학습센터에서는 교육 후 학습성과물을 지역내 소외계층을 위한 학습기부활동으로 연계 추진할 예정이어서 나를 위한 배움이 이웃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조종현 인재양성과장은 '김제시에서는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원하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주지 중심의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마을마다 학습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학습기부권 보장과 배움으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농기센터,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추진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는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귀농창업 지원을 위해 6개 분야(딸기, 토마토, 포도, 다육이, 버섯, 농산물 가공)에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농장을 지정하여 현장실습 교육을 추진하여 귀농인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은 교육농장에서 현장교수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하여 품목 특성, 재배기술, 선별, 유통, 판로확보, 소비트렌드 등 다양한 노하우를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교육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귀농인 40명을 대상으로 실시 된다.

분야별 현장교수는 딸기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딸기코킹강교 김미정 교수, 토마토 양액재배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린팜아리울 박문신 교수, 유럽종 포도재배하고 있는 로컬랜드 이대

훈 교수, 다육이와 선인장을 재배하고 있는 다산농원 박명순 교수, 농촌체험 교육농장 운영과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 지평선버섯영농조합법인 박신규 교수, 농산물가공을 하고있는 이레식폴 이정순 교수 등 귀농하여 성공한 농업인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귀농인들에게 성공사례와 실례사례 등 다양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한다. 귀농귀촌 현장실습에 참여한 용지현 김노원씨는 "포도재배를 계획하고 있는데 재배전 교육을 통하여 많은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 귀농창업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며 귀농인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는 실용적 인교육이다. 귀농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을 때 까지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안전문화운동 확산 위한 협약 체결

완주군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19일 군은 완주경찰서, 전주덕진소방서, 완주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완주전주신문등 유관기관과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주요내용은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기획홍보 등의 분야별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협력사항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완주군은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활동계획 수립 및 지원, 안전위험요소 모니터링 및 안전점검 실시, 안전문화운동 주민 교육·홍보·단속 실시, 지역위험성 진

단 등의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군은 이외에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과 안전마을 지킴이, 생명사랑 지킴이, 안전관련 민간단체의 활발한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군민의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문화운동 확산으로 군민의 안전의식 고취가 중요하다"며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으로 안전한 완주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적극 협조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김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바리스타 교육 과정 받아

김제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미란) 바리스타·홈카페마스터 과정 교육생 20명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2일간) 요촌동 소재 체사피크커피피자에서 바리스타 현장 실습과정을 진행하면서 커피이론교육, 커피추출 및 음료 제조와 고객 응대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바리스타·홈카페마스터 과정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지난 5월 8일 개강해 7월 24일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경력단절 일반여성, 결혼이민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인적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양성 취업교육으로 다문화 여성의 한국사회 정착 및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교육생 20명중 19명이 필기

시험에 합격하였고 이중 14명이 지난 7월 16일 실기시험을 마쳤으며, 자격증 취득 후 창업·취업 등 바리스타로서의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생(유00, 39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참여했지만 일련 일수록 매력적인 분야인거 같다"며 "현장실습을 통해 고객응대를 해보니 생각보다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서 놀랐고 마음이 실레기까지 했다"고 했다.

신미란 센터장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견학과 실습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취업교육생들의 현장수업을 통해 취업에 대한 거리감을 좁혀 담당할 직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청소년 창업공간 '완주꿈마루' 카페 오픈

완주군청소년수련관 1층서... 사회 적응 가능 토대 마련

완주군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19일 완주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유종화)은 심례에 위치한 완주군청소년수련관 1층에 '완주꿈마루' 카페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곳의 운영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로 구성된 '완주꿈마루협동조합'이다. 이젠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려는 강수현(22)씨가 대표를 맡았다.

강씨는 완주꿈마루 운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바리스타 전문교육을 받았고, 앞으로 강 대표가 조합원들을 교육시키며, 총괄적인 카페 운영을 맡는다.

강 대표는 "이제 막 개업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카페가 점차 자리 잡아가면 독립이 가능해질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이곳에서 성장해 내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고 밝혔다.

완주군 청소년지원센터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되면서 지원금을 받아 공간을 만들었고, 이곳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카페를 운영하고, 또 직접체험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됐다.



19일 완주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심례에 위치한 완주군청소년수련관 1층에 '완주꿈마루' 카페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군은 이 공간을 홍보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명확한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사회에 진출할 기회도 제공하는 곳이다"며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성장해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 꿈마루가 많은 청소년들의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며, 미래세대 아동·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 꿈마루 카페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완주 로컬푸드 재료를 이용해 만든 전 통차와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인건비를 제외한 카페의 수익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Advertisement for 'Jinan Hongsam' (진안고원 홍삼주) featuring images of ginseng roots and bottles of the product. Text includes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and '진안고원 JINAN GOWON'. It also mentions '19' 375ml' and 'Authentic Certificate of Quality'.